로비스트

(마21:12~17)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4.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7.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로비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로비스트'

여러분 1996년 김영삼 대통령 때 엄청난 액수의 국방산업 프로젝트가 하나 실행이 됩니다.
그 사업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백두사업이에요, 백두사업.
백두사업의 내용은 국방부에서 군 통신감청 정찰기, 통신을 감청하는 그런 정찰기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무려 2200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E-시스템사에서 개발한 정찰기를 구입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입찰에 같이 참여했던 프랑스나 이스라엘 등등 나라들에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열고 봤더니 E- 시스템사가 제시한 판매금액이 가장 비싸요, 엄청나게 더 비쌉니다.
그런데 어떻게 프랑스나 이스라엘이 제시한 더 낮게 책정된 판매가를 다 거절하고 가장 높게 책정된 E-시스템사의 정찰기를 구입하도록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결정을 했느냐?

이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서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국방부장관이 이양호 씨였는데 환경부장관 이었던 정종택 씨의 소개를 통해서 한 여자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입찰이 결정되기 3개월 전에.
그 만난 여자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카리스마 넘치는 로비스트 경북 청도에서 1953년에 태어나서 1979년에 도미한, 그래서 세계적인 무기 중개업체를 설립한 로비스트, 린다 김이 3개월 전에 국방부장관 이양호 씨를 만났다고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국회의원, 정부 부처장관들, 변호사들,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요.
근데 하여간 그때 김 영삼정부 때 무엇과 연관 되어 있는지 결국은 수사가 흐지부지 되면서 린다 김은 이 백두사업에 불법로비스트로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고액의 뇌물을 군 관계자들한테 주고 2급 군사 비밀을 6개 끄집어낸 그 혐의를 받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몇 개월을 받은 뒤, 출국을 하고 결국은 이 백두사업 불법로비스트 사건은 그대로 유야무야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로비라는 게 뭐에요? 로비.
로비는 미국이나 영국에 그 의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당 안에, 국회의원들이 원외의 사람들을 만나고 접견하는 별실이 바로 로비입니다.
그럼 로비스트는 뭡니까?
이렇게 로비에 와서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자기가 속한 단체에 유리한 법을 만들도록 설득하는 자들이 바로 로비스트들입니다.

오늘 성전정화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성전정화사건.
이 성전정화사건은 어떤 내용이냐?
불법로비스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로비스트들이 상대방에게 로비를 당한 케이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성전정화사건이 바로 로비스트가 하나님 입장과 천국입장을 대변하고 천국 로비스트로서 활동해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로비를 당해 버립니다. 로비를 당해버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해하시는 마음의 표현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전정화사건이라 이거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가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판매대를 다 뒤엎어 버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판매대를 뒤엎고 하니까 어떤 실내, 성전이라고 하는 실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전의 구조는 지성소가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건 건물이에요 빌딩입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 뜰이 있는데, 그 뜰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래요.
그 뜰을 문을 통과해서 나가면 그 뜰 바깥으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의 뜰을 또 미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올 수 있고 거길 넘어서 오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까지 다 합쳐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딩인 성소와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과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까지 합쳐서.

그런데 이 장사가 어디서 이루어 졌느냐,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장사입니까?
성전세를 낼 때 아무 돈이나 갖고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인이 찍힌 은화로서 만들어진 세겔을 냈는데, 반 세겔을 성전세로 냈는데,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모든 돈을 갖고 와서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이 은화를 바꿔야 됐어요.
근데 바꾸어 줄 때에 수수료가 얼마가 붙느냐 하면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의 절반가량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도둑, 강도들이지요.
그리고 그 돈 바꿔주는 자들이 그렇게 부당이익을 취해 가지고 거기서 막대한 프로테이지의 돈을 대제사장의 금고에 집어넣어 줍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 입니까?
제사물로 쓰는 것을 판정을 합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좋은 것인가 아닌가.
그래 불합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사 갖고 들어오는 모든 비둘기와 양들을 다 불합격시켜버리고,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것만을 합격시키는데, 무려 똑같은 비둘기가 성전 안에서 합격품으로 살려 그러면 얼마를 지불하느냐? 시가의 20배에서 25배까지 주고 샀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부당이익이 또 대제사장의 금고에 들어가고 장사꾼의 금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이 이 장사꾼의 굴혈이 되고 강도의 굴혈이 된 것에서 분격하며 성전정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 하십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화 받고 정복당하고 장악되고 설득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그 천국의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자기 식솔들을 그렇게 천국의 기운으로 설득시키고 천국의 기운을 전파 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 살아갈 때에, 이방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기운이 흘러들어가도록 한다는 하나님의 취지가 반영된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뜰은 선민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만나는 로비였습니다, 로비.

그 로비에서 무엇을 로비하느냐? '당신도 제1가치를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라.'
우리가 어제 부담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오직 예수님이라는 내용만이 있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 자식을 길러야 된다는 책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책임, 내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내 몸값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아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네 인생의 가치를 높이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의무감과 그런 책임감이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일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 첫 번째 부담은 하나님이면 된다, 돈을 벌려 그러지 말고 천국을 벌면 된다, 천국만 벌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로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자식문제의 정책을 결정하고 자기 인생문제, 자기 사업문제, 자기 집안의 문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천국을 갖고 기쁜 마음이 된 뒤에, 기

뿐 마음이 된 뒤에 세상을 바라보도록 설득하는 자들이 바로 선민이고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돈을 버는 장사꾼들을 성전 안에 끌어들였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천국,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최초의 천국 로비스트, 린다 김을 통해 우리나라에 로비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대중적이 돼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린다 김과 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천국의 1호 로비스트가 그만 세상의 로비에 먹혀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이, 선민을 거꾸로 로비해 들어올 때 그 내용이 뭡니까?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세상가치에 로비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천국 로비활동이 벌어져야 될 그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전의 개념이 바뀝니다. 성전의 구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내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부담으로 안고, 예수님만을 책임을 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계만을 의무감을 갖고 관계해 나갑니다.
돈 벌어야 된다는 의무감도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없고 아~무 의무감이 없어요, 아무 의무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의무감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요,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 됩니다,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몸이 성전이 되었을 때에, 이 몸으로 살게 되는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친구들끼리 모이는 사회, 이웃사회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의 뜰이 된다는 겁니다, 모두 이방인의 뜰이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은 뭐라고요? 영국과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원외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가 로비에요, 로비.

가정은 로비입니다, 스위트 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집안에서 가정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이 우리의 스위트 홈이고 거기서 안식을 얻고 안정을 얻는 것이지, 우리 가정도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볼 때 로비 상대에요, 내 안에 들어온 천국이 로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정화를 하신 뒤에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에서 고쳐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자들과 맹인을 고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을 보게끔 설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을 보지 않고 걸으므로 절룩거리고 있는 자들을, 왜 하필 맹인과 절룩거리는 자들입니까? 왜 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보지 않는 한 인생은 절름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한 모든 사람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득하고 하늘의 기운을 내 뿜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야 될 일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뚫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젖먹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슨 뜻입니까?
젖먹이와 어린 아기가 뭡니까? 성취의 경주, 몸값 올리기의 경주에서 성취 제로, 몸값 올리기 제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기와 젖먹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줄달음치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점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성취 제로, 몸값 올리기 제로상태에서 천국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노래를.
무슨 노래? 천국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입만 열면 돈 돈 하듯이, 애 키우는 엄마가 입만 열면 아이의 교육 교육하듯이, 천국을 가진 자들이 입만 열면 천국 천국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천국 노래를 부르며 로비스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만을 부담으로 안고 천국을 갖게 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담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이 가계신 천국을 로비하면서 사는 거라 이 겁니다.
가정은 로비에요, 여러분, 직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로비입니다, 로비.
내가 로비스트로서 활동해야 될 로비.
어떤 로비스트가 로비에서 돈 벌려고 생각합니까? 자기 돈 쓰면서 자기가 속한 단체를 위해서 자기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돈 쓰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직장에 로비스트로 가서 돈 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주도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로비스트이기 때문에, 그 로비스트로서 활동할 대상이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이웃이고 부모이고, 그리고 직장 동료이고 모~든 나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다 내 로비스트 활동에, 로비 활동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시는 것은 그 로비활동에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로비활동에 쓰라고 로비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쓰라고 돈의 흐름을 결정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요? 의사자격증, 변호사자격증, 판사자격증, 교수 이런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증, 다~ 로비활동에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구비조건들입니다.
여러분, 눈 뜨셨지요? 어디서 눈 뜨신지 아십니까? 로비에서 눈 뜨신 거예요.
밥상에 앉아서 자식과 마주 앉아 아침밥을 드시지요?
그 자식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에 갖게 된 천국을 로비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성취경주에서 일등 하려하고, 몸값 올리기 경주에서 일등하려는 모~든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너는 어쨌든지 이제까지 돈 벌고 싶어 했던 것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벌어라, 그 길이 십자가에 있다, 이제까지 네 몸값 올리기 위해서, 너의 가치를 자기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의무감을 느끼고 매진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오직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깊이 빠져 들어가고, 천국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깊이, 하나님의 가치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쪽으로 노력을 경주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머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는 로비스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로비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직장, 이방인의 뜰입니다.

나 말고 모~든 사람은 로비에 있는 내 로비스트로서의 활동대상임을 잊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 두시고 살게 해 주시는 그 이유가 충분히 결실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익을 위해 돈 버느라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파송된 로비스트라는 사명을 잊어 버렸습니다.

이제 내 돈 써가며 천국을 로비하는 로비스트로서 내 가족을 대하고, 직장 동료들을 대하고 사회 이웃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천국 로비스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